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창세기. 21:1)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은 아브람의 이모 형제입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의 측녀 하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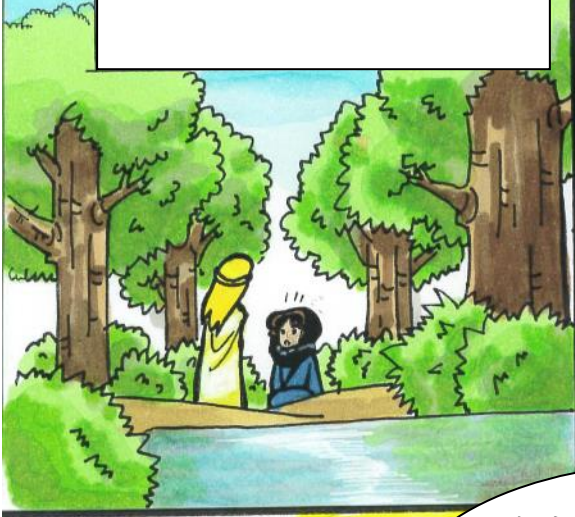


이삭의 탄생 전에는 사라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자신의 노예 하갈을 주고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광야의 숲 길에 있는  
샘에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에게 명하더라.



하갈은 도망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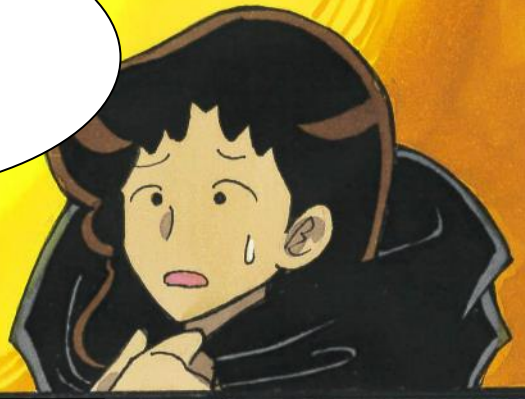


사라가 하갈을 학대  
하기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은 여주인에게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자가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시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륙세이었던라



아브람이 구십구세가 되었을 때 주님은 아브람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르셨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후, 할례와 다른 의식은 폐지되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악과 죄로부터의 씻음」입니다.



지금도 있는 의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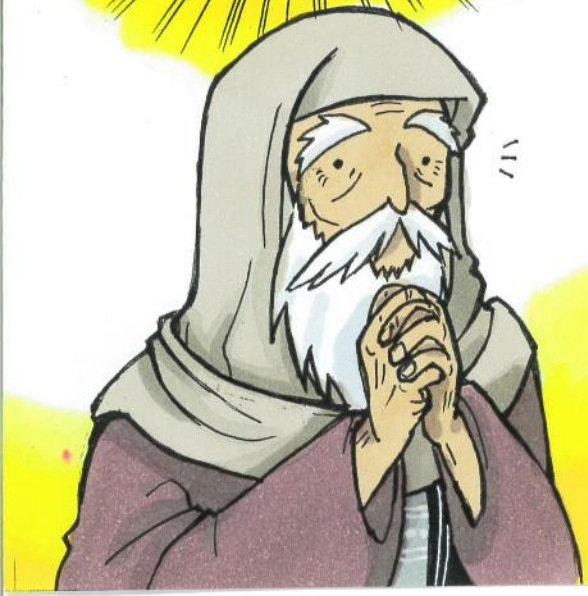
육체의 할례는 폐지되었지만 악과 죄로부터의 씻음은 남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자!

사이 좋게 지내자!



씻음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AC1986)



우리가 악을 죄로 알고 거절하지 않으면 주님의 유입은 없습니다.



방해!

